

Venture Radar

선도 벤처기업 견조한 성장

지난해 벤처경기의 전반적인 위축에도 불구하고 선도 벤처기업들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에 따르면 벤처기업 중 지난해 최대 매출액을 올린 기업은 어필텔레콤으로 이 회사의 지난해 1~9월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26.1% 증가한 488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실적 1위를 기록한 벤처기업은 팬택으로 지난해 1~11월 수출액이 3억9300만 달러로 총 매출액의 93.9%에 달했다.

이밖에 어필텔레콤(57.0%), 휴맥스(91.0%), 세원텔레콤(64.3%), 한국티티(93.3%), 벨웨이브(62.8%), 바이어블코리아(95.5%) 등 수출액 상위기업들은 매출의 절반이상을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가장 큰 벤처기업은 엔씨소프트로 시가총액이 1조2412억원에 달해 국내기업중 34위를 차지했다. 시가총액 기준 국내 상위 100대 기업에는 벤처기업 12개사가 포함돼 있었다.

중기청은 “매출 등 외형적 수치로만 계산하면 선도 벤처기업 50개사를 육성해 삼성전자와 맞먹는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벤처기업의 이같은 성장세는 새로운 형태의 대형 전문기업의 출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 구조조정펀드 2000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청은 12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중소벤처기업 구조조정펀드를 1월까지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정부자금 349억원을 토대로 국민연금 374억원 등 민간출자 850억원을 유치해 12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지금까지 조성된 펀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KTB네트워크의 SBC-KTB(340억원), IMM파트너스의 IMM 7호(280억원), 네오플릭스의 네오플릭스 03~3호(304억원), 밸류미트인베스트먼트의 밸류미트 2호(215억원) 등이다.

이 펀드는 향후 3~5년간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중인 기업, 채권금융기관 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등의 경영정상화와 M&A를 위해 투자될 예정이다.

2월부터 대통령 주재 산업경쟁력회의 운영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지난 7일 기업의 기(氣) 살리기를 위한 ‘산업자원행정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기 진작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매월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재계가 참석하는 산업경쟁력회의가 운영된다. 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 제조업공동화, 외국인 및 전문인력 수급대책, 중소기업 활성화방안 등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하여 산자부는 중소기업 창업 통합지원체제 구축, 벤처기업 M&A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세제지원확대,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 기업 윤리경영 노력 강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 국민이 기업을 재산으로 여기는 풍토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중기청, 외국기업의 국내기술 불법복제 예방활동 강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 송재빈)은 지난 7일 외국기업의 국내 기술 불법복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홍보 등 대책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기청은 “최근 중국기업들이 수출, 현지공장설립, 기술협력, 중국강제인증획득 대행 등을 이유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불법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1, 2월 중 학계, 언론기관, 피해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불법복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도를 높이고 불법복제 예방 및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는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복제 피해가 발생한 기업중 1~2곳을 선정해 집중지원, 피해구제에 대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중소기업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복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문제해결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와 특허청에 통상회의 및 특허회담 등의 안건으로 이 문제를 상정토록 요청하는 등 관련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 이공계살리기 의지 표명

정부는 이공계 출신 미취업 석사와 박사 1300명을 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등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 공계 석·박사의 군복무 대체제인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 10개월에서 3년으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일 과학기술인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 “차세대 성장동력이 되는 핵심 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창의적 핵심 인재가 산·학·연에 널리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과학을 꾸준히 진흥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진학 유도,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 진출 확대,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에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창업보육센터 작년매출 46% 늘어 1조2000억

일반 중소기업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들의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7일 생명공학연구원BI 등 전국 289개 BI에 입주해 있는 4020개 창업기업들의 지난해 매출액이 총 1조2100억원으로 전년도 8295억원보다 46% 늘었다고 밝혔다.

이같이 BI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늘고 있는 이유는 BI 입주업체의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 투자로 수출 및 판매 확대를 일궈냈기 때문인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분석했다.

BI 입주업체들의 지난 한해동안 수출액은 1100억원에 이르렀으

며 현재까지 기술개발 투자로 창출해낸 지식재산권은 429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청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대외인지도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BI 입주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해 지난해부터 품질인 증제도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이 제도는 각 제품들이 정부 공인 시험기관 20곳의 품질시험을 거쳐 우수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BI 공동상표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입주기업에 대해 지난해 150억원의 자금을 신용으로 지원했다.

중기청은 BI 입주기업들이 마케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브랜드 개발 및 공동판매 네트워크 구축에 10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대출해줬다. 또한 ▲ 중진공 BI ▲ 테크노파크 ▲ 유희공공시설 등을 BI 졸업기업을 유치하는 포스트보육센터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성공사례집 발간

중소기업청은 성공한 벤처기업 20개사와 실패한 벤처기업 4개사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한 《벤처, 재도약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벤처기업 성공스토리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NHN, 다음 등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 20개사의 성장과정과 성공요인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실패사례로 소개된 4개 기업은 창업초기에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 벤처기업인들이 귀감을 삼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벤처이슈

세계경제가 기술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도 첨단 신기술 개발 능력을 갖춘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야한다는 제언을 담은 벤처기업협회 장흥순 회장의 칼럼

▼ 2004년 1월 8일(목)자 전자신문 오피니언면

전자신문

지난 세월에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을 진단한 통계조사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바로 '올해생 10명 가운데 4명이 휴학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이공계 실리 가운데'를 주창하던 이공계 출신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마음이 아프다. 많은 이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로 기술, 자본, 정보 등을 꼽는다. 이 가운데 오늘날과 같이 산업의 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에 기술적 요소가 가장 중요해졌다.

기술은 사람이 창조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곧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매일 체현해야 하는 기업인들은 중요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늘 애를 태운다. 특히 기술개발에 필요한 벤처기업의 경우 인재의 중요성은 여타 권위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대중'은 벤처기업인들을 '유리한 인재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사람이 못났다' 이유다. '대중'은 '대중'이 아닌 '인재'라는 소리가 아니다. 기업인들은 바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쯤 울로라비 산다. 작년 현직인 동계기 시외본사로 부각된 때에도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가슴 아팠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공계 학생들이 고시공부를 건너거나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휴학을 하는 것은 어



벤처포럼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회장)

인재육성의 반석 다져야

벤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굳이 끄집어낸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고시 공부로 대변되는 인력 관주의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아니다. 또는 순수학문이 멸종할 위기에 직면한 세태를 꼬집고 싶어서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업인으로서 대산업을 종업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살 수 있게 된 원천적인 밑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다.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면하고 부지런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

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 노동력으로는 바릴 재간도 없다.

세계경제는 지금 기술중심의 경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을 허물며 조성된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부분 이들 나라에 속한 다국적 기업들은 기술력을 무기로 또다른 시장의 공략을 늦게 채우는 현명함을 담당하고 있다.

가뜩이나 이웃 중국과 IT산업의 중심지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기술을 중시한 결과다. 국가사활을 결정짓는 상무위원의 절대 다수가 기술의 중요

성을 간파한 이공계 출신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인재육성, 나아가 '올바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 한다. 특히 첨단 신기술 개발 능력을 갖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들이 없으면 기업도 국가도 미래가 없다.

정부도 그동안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친 것은 사실이지만, 총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이공계 출신들이 펠로스에 머무르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 사회적 평판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사회적 풍토에서 희생할 줄 모르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적 부자다. 평범한 노력이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 과제다.

물론은 영웅이 세워진 다양한 나라와 피주를 가진 이공계 출신 인재들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때다. 한편으로 우리에 미래가 달린 줄 만한 인재육성의 반석 다지는 연재가 되기를 기대한다.

bschang@urbotek.co.kr

연구개발성과인 기술을 현금으로 환산해 이를 자본금 형식으로 출자한 '기술출자 벤처기업'이 국내 처음으로 등장했다. 기술출자형 창업은 지적재산권과 노하우의 가치를 현금으로 평가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곧 자본임을 시사한 중요한 사례가 됐다

▼ 2004년 1월 7일(수)자 디지털타임스 24면

디지털타임스

'기술출자 벤처' 첫 등장

원자력엔 '선바이오텍'

연구개발 성과인 기술을 현금으로 환산해 이를 자본금 형식으로 출자한 '기술출자 벤처기업'이 국내 처음으로 등장했다.

6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식품 생명공학연구팀(팀장 변영우·조성기 박사)은 한국콜마와 화장품·기능성식품·의약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선바이오텍을 설립하기로 하고 오는 7일 원자력연구소에서 약정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선바이오텍의 초기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한국콜마가 8억2000만원(지분율 62%)의 현금, 원자력연구소가 3억8000만원 상당의 기술(지분율 38%)을 각각 출자했다. 국내 23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기술출자 방식으로 회사 설립을 검토 중인 연구소 중 원자력연구소가 처음이며 이는 대학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원자력연구소의 장인식 소장은 "기술출자형 창업은 지적재산권과 노하우의 가치를 현금으로 평가해 직접 투자

하는 방식"이라며 "항우 이익은 관련 연구부문의 재투자 및 참여 연구원의 인센티브 지급 등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정부출연 연구소가 특허료와 해당 제품의 매출의 일부(2%)를 받는 조건으로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고 있다면 기술출자 벤처기업은 특정 기술을 자본으로 인정받아 회사의 실제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기술이전 방식은 기술을 넘기는 순간 사실상 양측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양산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등 많은 한계가 노출됐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방사선이용기술(RT) 연구성과를 생명공학(BT)과 나노기술(NT) 등과 접목해 개발된 신소재와 복합 첨단기술을 자본으로 인정받았다.

결정권은 1대 주주인 한국콜마가 맡게 되며 연구소는 감사나 이사 등 최소한의 인력만 파견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된다.

오통기획자 hunter@dt.co.kr